

가구 용어 연구 II¹

-전통가구 종류 및 경첩을 중심으로-

문선옥²

A Study on Furniture Terminology (II)¹

-For Types & Hinges of Traditional Korean wood Furniture-

Sun-Ok Moon²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the furniture terms in English relating to the types (*Jang*, *Nong*, *Bandazi*) and hinges (*Gyeongchup*) of traditional Korean wood furniture considering furniture globalization. Traditional Western chest, commode, wardrobe, cupboard, secretary, cabinet, and bookcase, which store something such as clothing, books, tablewares, small things and so on, could be compared with the *Jang*, *Non*, and *Bandazi* in terms of the pieces' use in researching the terms between English and Korean language. Hardwares decorating surfaces of the pieces, including the furniture types and details, were studied according to the shapes and the uses in order to explore the two terms. As a result, the terms of chest (*Gaew*), commode (*Seolapjang*), cupboard/buffet (*Chanjang*), wardrobe (*Ottjang*), cabinet (*Jang*), secretary (*Jang*), bookcase (*Checkjang*), and Half-opened chest (*Bandazi*) were analyzed and proposed in Korean and English language. In addition, the terms of the hinges between the two furniture were studied as well.

Keywords: Term, traditional Korean wood furniture, types, hinges, shapes, decoration, English.

1. 서론

한국의 현대 목가구의 토대를 이루는 한국전통가구에 관한 용어 연구를 위하여 '이음 및 쇠시리'에 관한 지난 호의 연구에 이어 외부의 형태와 장식으로부터 한국전통가구의 양식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그 종류와 장식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필요성을 지난 호에 이어 간단히 상기 시키자면 현재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가구문화관련 용어는 전통시대로부터 근대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및 기타 외래어가 혼용되어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 및 교육 현장의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면서 공통성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1. 논문접수: 2008. 09. 08.

2. 경상대학교 환경산림과학부, Division of Environmental Forest Science,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GNU, Jinju 660-701, Korea. E-mail: somoon@gnu.ac.kr.

날 포스트모더니즘의 다문화 시대에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구문화 용어를 통일화·한국화 하여 영어로 변환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한국의 찬란한 가구문화를 세계 속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일본어 한자 등으로부터 영향 받은 가구 관련 기존의 한국어 명칭을 영어와 비교 및 분석하여 문제점 제시에 따른 결과 도출로부터 공통성 확보에 기여함을 그 연구 목적 및 범위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한국 전통 목재가구를 제작하는 소목장들이 사용하는 소목용어, 그와 관련된 영어 및 기타외래어(한자)를 중심으로 현재 관련 전공자들이 즐겨 보고 있는 관련 문헌 및 소목장들과의 인터뷰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통일화·공식화된 한글 및 영문 가구용어사전이 전무한 실정에서 목재 가구 제작의 기반인 전통목가구용어 연구를 통하여 전반적 가구문화용어로부터의 일반적으로 사용한 용어들에 대한 문제 제기, 그 것의 영어 표기를 위한 영문 제안으로부터 한글과 영문 표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한국전통목가구의 종류와 경첩의 형태에 관한 세부적 표기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2. 한국 전통목재가구 용어

안방, 사랑방, 부엌, 대청 등에서 사용하는 가구로 전통가구문화는 크게 나누어지는데 옷장, 의걸이장, 반닫이장, 머릿장, 문갑장 등과 관형농, 기동형 농, 경대, 반질고리, 함, 책장, 서안, 사방탁자, 촛대, 빗집고비, 상자, 함, 궤, 연상, 사방탁자, 층 탁자, 평상, 필가, 등롱 소반, 찬장, 층 탁자, 반닫이 장, 궤, 뒤주 등으로 그 종류를 말할 수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이러한 한국전통목재가구는 각 지역에 따라 그 용도, 형태 및 장식이 발전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지역을 불문하고 장, 농, 반닫이는 일반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장롱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한 다양한 문양의 장식이 발전되었다. 따라서 장, 농, 반닫이를 그에 따른 장식에 관하여 살펴보고 한자와의 연관관계에 의한 의미가 추론된 명칭으로부터 그것의 영문표기를 분석할 것이다.

2-1 장, 농, 반닫이의 정의

장과 농은 한국전통목가구를 대표하는 가구로써 장의 정의를 살펴보면 장은 층이 분리되지 않고 널과 기둥 또는 널과 널을 결속한다. 즉 장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도 앞널과 측널이 하나로 구성된다. 장은 궤에서 출발하여 점차 높아지고 문의 개폐방법도 상하 여닫이에서 좌우 여닫이로 변화되었으며, 용도와 보관물의 규모에 따라 이층장 또는 삼층장으로 확대된 것으로 여겨진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p. 9). 농은 자그마한 가구로써 농은 장과 달리 각 층이 분리되는 형태로 두 개의 농을 쌓은 것은 이층농, 세 개의 농을 쌓은 것을 삼층농으로 불리며 주로 옷가지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 수납장이다(p.186). 그리고 지역을 불문하고 사용된 또 하나의 가구로 반닫이는 앞면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 면의 반을 여닫도록 만든 가구이다. 반을 여닫으므로 반닫이라 부르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문을 앞쪽으로 열고 닫는다 하여 앞닫이라 부르기도 한다. 계층에 구애 없이 사용했던 반닫이는 오히려 장, 농보다 필수적인 혼수용품으로서 반닫이는 장, 농과 더불어 집집마다 한 두 개 정도는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인 가구이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p. 273).

2-2 장, 농, 반닫이 용어

한국전통 목가구의 대표적인 장, 농, 반닫이의 형태로 이루어진 옷장, 의걸이장, 책장, 반닫이장, 찬장, 문갑장, 머릿장, 판형이층농, 기동형이층농 등으로 불리며 주로 수납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 및 용도를 보이고 있다(Table 1 참조). 그 가구용어를 추정할 수 있는 용도를 살펴보면 옷장은 옷을 보관하는 용도로 제작된 가구이며, 주로 안방에 놓고 여성들이 사용했다. 규모에 따라 일층장, 이층장, 삼층장의 층의 변화가 있고, 보관물의 양에 따라 2-3개를 함께 놓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의걸이장은 장의 내부에 햇대가 있어 의관을 걸어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으로 옷장이 여성의 전유물이었다면 의걸이장은 주로 남성의 의복을 보관했던 장이다. 현대의 양복장과 비슷한 용도로 일층이나 이층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이층 의걸이장인 경우 일층은 여닫이나 미닫이 구조이며, 신발, 관모 등을 보관했다. 책장은 남성들이 머물렀던 사랑방에 놓고 책을 보관했던 가구이다. 책의 양에 따라 장의 폭과 층고가 확대된다. 책장은 문판 밑의 머름칸의 층수가 적고 문판 하부의 머름칸이 없는 경우도 있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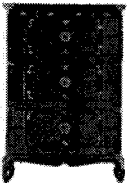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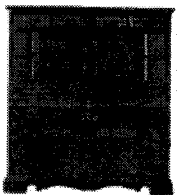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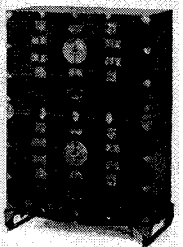
반닫이장은 반닫이와 장의 기능이 혼합된 형태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위층은 옷을 보관하는 장의 형태인 반면 아래층은 반닫이의 형태를 하고 있다. 아래층에는 장기간 입지 않는 옷을 보관하고 위층은 자주 입는 옷을 넣어둔다. 머릿장은 기거하는 방의 머리맡에 놓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장으로 대부분 단층으로 제작한다. 옷과 서류 등을 보관하며, 천판위에는 애완품이나 작은 물건을 올려놓기도 한다. 찬장은 찬방(饌房) 혹은 대청에 놓고 일용식기 외에도 각종 반상기를 넣어 보관했던 장이다. 많은 양의 그릇이나 음식물을 쌓아두고 사용했으므로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굵은 기둥과 두꺼운 판재를 사용했다. 문갑장은 문갑(文匣)과 장의 기능이 합해진 형태의 가구이다. 위층은 장의 형태이고 아래층은 문갑의 형태이며 반대인 경우도 있다. 사랑방이나 안방에서 문방구, 문서, 그 밖에 작은 물건 등 다양한 용품을 수납한다. 수납할 용품에 따라 서랍, 선반 등을 설치하며, 주로 복층을 이룬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pp. 12-13).

이상의 한국 전통 가구(대부분 조선시대 말기 양식으로 추정) 용도로부터 온 장, 농 형태의 가구용어를 서양의 전통 가구 양식(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신조전주의, 기계화 시대로 가는 과도기 등)으로부터 그 가구용어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문으로 장, 농, 반닫이의 용어 표기를 살펴보면 주로 Table 2에서 보듯이 캐비닛(Cabinet), 찬장(Cupboard), 대형 상자(Chest), 서랍(Chest of drawers), 옷장(Wardrobe), 세크리터리(Secretary) 등으로 나타냈으며 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Boyce 1988, p. 49)(Blakemore 1997, p. 79, 135, 172, 255, 257, 304)(Luice-Smith 1993, p. 76, 79). Table 2에서 보는 캐비닛은 찬장과 같은 저장고로 이루어져 있는 상자형태의 가구(Case furniture)로서 앞면에 문이 있고 다양한 작은 서랍들 또는 칸막이들을 포함하고 작은 물건들을 저장하거나 놓도록 의도된 것이다. 상자형태의 가구는 사각 상자처럼 만들어져 사물을 넣도록 의도되었으며 이 상자형태 가구의 기초는 뚜껑달린 대형 상자(Chest)와 찬장이다. Boyce (1988)는 그 뚜껑 달린 상자로부터 많은 다른 형태들이 후에 개발 및 발전되었는데 그들 중에 우수한 것은 캐비닛, 서랍들을 구성한 체스트, 옷장과 세크리터리이다(p. 49). Boyce (1988)에 따르면 옷장(wardrobe)은 옷을 보관하도록 의도된 상자 형태의 가구로. 키가 크며 서랍들을 가지고 있는 대형 상자이다(p. 314). 찬장(Cupboard)은 판넬 벽으로 만들어진 상자 내부에 끼워진 선반을 구성하고 있는 상자형태의 가구로 전면에 문이 있고 보통 가정용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었다(p. 77). 서랍장(Chest of drawers)은 서랍의 파일 더미를 구성하는 대형 상자 형태가구이다(p. 56). 책장(Bookcase)은 책을 저장하는 상자형태의 가구로 여러 층의 선반으

로 이루어져서 문에 의해서 열고 닫는다(Boyce 1988, p. 34). 코모드(Commode)는 처음에는 다리가 있는 여러 개의 서랍장으로 쌓여 있는 상자 형태로 나타났으며 후에는 문이 달려 열고 닫는 형 등으로 다양해진 것들로 한국어로는 서랍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Table 2 참조). 서구의 수납을 하는 장, 농의 형태는 수납하기위하여 뚜껑이 있는 단순한 대형 상자 형태로 출발하여 다양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 및 형태와 아름다운 조각장식을 가미한 가구로 캐비닛, 컵보드, 책장, 셰크리터리, 서랍장 등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랍장 형태는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가구의 쓰임새 및 형태에 따라 table 1과 table 2에서 보듯이 비교하여 한글과 영문표기를 분석하여 그 용어들을 제안하였다. 한국전통목가구에서 주로 옷이나 생활 귀중품 및 소품을 함께 보관하는 옷장, 의걸이장, 반닫이장, 문갑장은 워드로브(Wardrobe), 찬장은 컵보드(Cupboard), 책장(Bookcase), 반닫이(Half-opened chest)로 영문 표기를 하였다(Table 1 참조). 서구의 가구에서 볼 수 있는 케(Chest), 찬장(Cupboard/buffet), 옷장(Wardrobe), 장(Cabinet, Secretary), 서랍장(Commode), 책장(Bookcase) 등으로 영문을 한글로 표기하였다(Table 2 참조). 그리고 국내 전역에서 나타난 반닫이는 서구의 대형 상자형 가구(Chest)의 형태에서 흡사한 점을 볼 수 있듯이 아마도 한국의 전통가구도 처음에는 단순한 반닫이형 가구로 시작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 및 크기의 반닫이, 장, 농 등으로 발전한 것을 추정해 본다.

Table 1. Terms of traditional Korean wood furniture types

Term	Traditional Korean wood furniture types	Term	Traditional Korean wood furniture types
옷장: <i>Zang</i> (Wardrobe)		찬장: <i>Chanzang</i> (Cupboard)	
의걸이; <i>Jang</i> (Wardrobe)		머릿장: <i>Morijang</i> (Head wardrobe)	
반닫이장: <i>Bandazijang</i> (Half-opened wardrobe)		관형이층농: <i>Nong</i> (Two-storied flat wardro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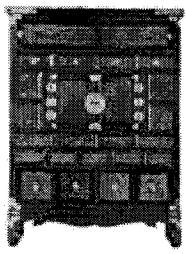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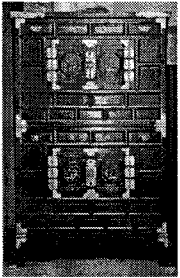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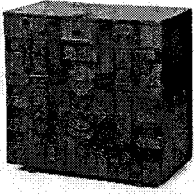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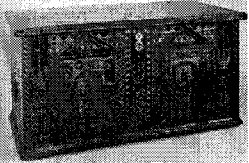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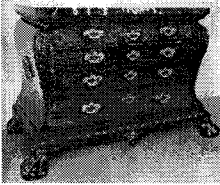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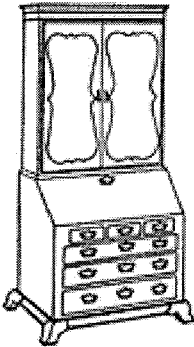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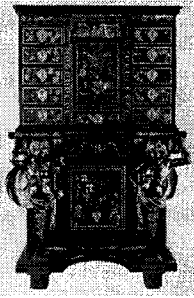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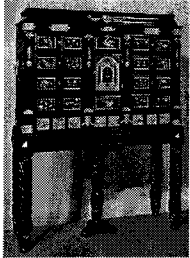
<p>문갑장: <i>Moongapjang</i> (Stationary wardrobe)</p>		<p>기둥형이층농: <i>Nong</i> (Two-storied-supported wardrobe)</p>	
<p>책장 (Bookcase)</p>		<p>반닫이: <i>Bandazi</i> (Half-opened chest)</p>	

Table 2. Terms of traditional Western furniture types

Term	Western furniture types	Term	Western furniture types
<p>Chest (15th century) 궤</p>		<p>Chest (1560-1600) 궤</p>	
<p>Commode (c. 1730) 서랍장</p>		<p>Commode (c. 1775) 서랍장/머릿장/장</p>	
<p>Cupboard (Buffet) (16th century) 찬장</p>		<p>Secretary 장</p>	

<p>Wardrobe (Louis XIV Armoire) 옷장</p>		<p>Cabinet (1642-1732) 장</p>	
<p>Bookcase (c. 1730) 책장</p>		<p>Cabinet (c. 17th century) 장</p>	

2-3 한국전통목재가구의 세부 명칭

전통적으로 한국가구의 중심을 이루었던 장, 농의 분석에 이어 그 표면을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용도에 따라 사용을 부여하는 장식을 비교 연구할 것이다. 전통목재가구의 부위에 따른 명칭을 살펴보면 천판, 개판, 널, 서랍, 쥐벽칸, 머름칸, 기둥, 쇠목, 동자, 복판/문판, 문변자, 풍혈, 마대, 족대, 전(변죽), 운각, 중대, 쇠시리 등으로 구성되어 불려지고 그 목재 가구의 표면에 부착되어 완성되는 금속 장식, 즉 장식의 명칭은 앞바탕/윗바탕, 뽕침대, 경첩, 귀장식, 감잠이, 들쇠, 광두정, 배꼽장식, 은혈자물쇠, 통판, 알판 등으로 구성된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Table 3은 옷장으로 사용된 장으로 그 구조 및 의미에 따라 영문 표기를 살펴보면 왼쪽으로부터 천판(Sky/top board), 서랍(drawer), 쥐벽칸(Board/Gyebyuckcan), 동자(Short pillar), 복판(Center board), 쇠목(Width pillar), 머름칸(Board/Morumkan), 문변자(Frame/Moonbyunza)기둥(Length pillar), 풍혈(Wind hole), 마대(Base support), 족대(Foot board)로 제안하였다. 오른쪽의 명칭을 살펴보면 천판귀장식(Sky-board-edge decoration), 귀장식(Edge decoration), 측널(Side board), 감잠이(Splice plate), 눈썹(Eyebrow), 앞바탕(Foreground), 경첩(Hinge), 마대귀장식(Base-support-edge decoration)으로 영문 표기를 제안하였다. 머름칸과 쥐벽칸은 보드로 하였는데 가구의 문열을 막아낸 구간 또는 널을 쥐벽칸이라 하고 문이 없이 널로 막은 좁은 구간을 머름칸이라 하는데 이 의미들을 전달하는 영문 표기의 적절한 표현이 연구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p. 621).

따라서 위의 연구에 따른 가구의 외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장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장식 중에서 가구의 용도를 결정하는 경첩에 관하여 다음 장에서 살펴보았다.

Table 3. Detail and hardware terms of the traditional Korean wood furniture (*Jang*)

Num	Detail term	Traditional Korean wood furniture	Num	Hardware term
1	천판 Sky/top board		1	천판귀장식 Sky/top-board-edge decoration
2	서랍 Drawer		2	귀장식 Edge decoration
3	취벽칸 Board/ <i>Gyebuyukkan</i>		3	측널 Side board
4	동자 Short pillar		4	감잡이 Splice plate
5	복판 Center board		5	눈썹 Eyebrow
6	최목 Width pillar		6	앞바탕 Foreground
7	머름칸 <i>Morumkan</i>		7	경첩 Hinge
8	문변자 Frame (<i>Munbyunza</i>)		8	귀장식 Edge decoration
9	기둥 Length Pillar		9	마대귀장식 Base-support-edge decoration
10	최목 Width pillar			
11	동자 Short pillar			
12	풍혈 Wind hole			
13	마대 Base support			
14	족대 Foot support			

3. 전통가구의 경첩 용어

3-1 한국전통가구경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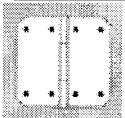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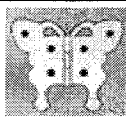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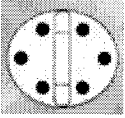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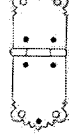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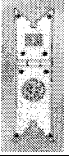

장식은 목재 가구에 첨가되어 금상첨화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는 목재가구를 구성하는 금속 재료로 놋쇠(brass), 시우쇠(무쇠: iron), 백동, 구리(Copper), 오동쇠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문양으로 만들어 졌다(손과 강 1990)(이 1990)(국립민속박물관 2004). 경첩과 함께 장식은 형태의 디자인에 따라 방형, 원형, 박쥐형, 제비초리형, 백동, 호리병형, 보상화병, 철판, 제비초리 변형, 망두형, 화형, 합금, 초형, 나비형, 단순형, 조엽형, 물고기형, 매미형, 정방형, 도장형, 버선코형, 석류형, 마름모형, 근자과 화초문 등으로 불리워진다(나 1989, p. 73). 전통가구 장식에서 경첩은 두 개의 금속판이 겹쳐지며 문이 열린 하여 '겹첩'이라고 하였으며(손과 강 1990, p. 24), 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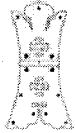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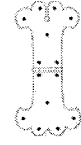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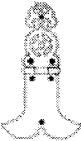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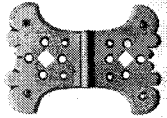


우나 상하의 두 날개가 축을 중심으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창문이나 가구 문짝의 문 판과 기둥에 각각 박아 문을 여닫게 하는 금속장치로 그 형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자연물의 형태로 그 의미를 내포하면서 실용성 함께 장식성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국립민속박물관 2004, p. 621).

Table 4에서 보듯이 전통경첩의 다양한 형태를 의미를 내포하는 영문표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방형(Square hinge), 나비형(Butterfly hinge), 원형(Circle hinge), 매미형(Cicada hinge), 박쥐형(Bat hinge), 단순형(Simple hinge), 제비초리형(Swallow-tail hinge), 호리병형(Gourd-bottle hinge), 제비초리형변형(Modified-swallow-tail hinge), 망두형(Stone-post-head hinge), 도장형(Handstamp hinge), 버선코형(Front beoseon nose hinge), 석류형(Pomegrabate hinge), 실패형(Spool hinge), 약과형(Fried cake hinge), 저고리형(Jeogori hinge)로 제안하였다. 망두석 경첩은 망주석/망부석의 형태로 그렇게 불리며 망부석은 묘를 알아보도록 세우는 것으로 무덤을 치장하기위해 묘 앞의 양옆에 하나씩 세우는 돌기둥을 말한다(김과 정 2008). 이러한 형태는 주로 사용된 경첩이었고 이외에도 의미가 내재된 다양한 형태의 경첩들이 장, 농, 함, 경대, 반닫이 등에 주로 달았으며 지방에 따라 발전되어 전통목가구의 실용적 기능과 장식적 기능을 동시에 의도하였다(손과 강 1990, p. 24). 그러한 경첩으로는 등그레경첩, 병풍이중경첩, 운문경첩, 불로초경첩, 호패경첩, 수파련경첩, 남대문경첩 등으로 잡다하게 있다(이 1990, pp. 32-33).

이상의 한국전통가구경첩의 용어, 형태 및 의미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서구에서 사용한 전통 가구경첩을 살펴보았다.

Table 4. Terms according to the hinge shapes in traditional Korean furniture styles

Term	Hinge	Term	Hinge
방형 Square hinge		나비형 Butterfly hinge	
원형 Circle hinge		매미형 Cicada hinge	
박쥐형 Bat hinge		단순형 Simple hinge	
제비초리형 Swallow-tail hinge		호리병형 Gourd-bottle hi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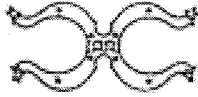

제비초리형변형 Modified-swallow-tail hinge		망두형 Stone-post-head hinge	
도장형 Handstamp hinge		머선코형 Front-beoseon-nose hinge (Traditional Korean socks)	
석류형 Pomegranate hinge		실패형 Spool hinge	
약과형 Fried-cake hinge (Traditional Korean cake)		저고리형 Jeogori hinge (Traditional Korean jac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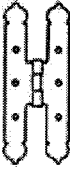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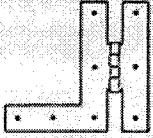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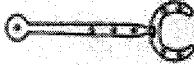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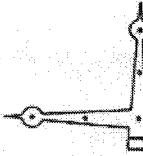
3-2 서구의 전통가구경첩

다양한 형태와 배치를 보이는 그 전통가구경첩은 고대시대부터 알려져 장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것의 배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외관에 따라 붙여진 이름에 의하여 구별되었다고 Boyce (11988)는 설명 했다(p. 140). Table 5에서 보듯이 수탉머리경첩(Cock's-head hinge), 나비경첩(Butterfly hinge), 에이치경첩(H-hinge), 에이치엘경첩(H-L hinge), 손잡이경첩(Strap hinge), 말굽손잡이경첩(Horseshoe & strap hinge), 쥐꼬리경첩(Rat-tail hinge/Devil-tail hinge), 엘경첩(L-hinge) 등을 영문표기를 한글표기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경첩용어들도 한국전통가구경첩의 용어와 마찬가지로 경첩 외관의 형태로부터 내재된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나도록 붙여졌으며 그 붙여진 이름으로부터 명확하게 그 의미가 파악됨을 알 수 있었다 (Table 5참조).

따라서 그 두 경첩을 비교해 볼 때 그 형태에 따라 용어가 붙여졌으며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있는 자연으로부터 온 동·식물, 사용하는 사물, 옷, 음식, 알파벳 글자 등에서 아이디어를 전개하여 실용성에 장식성을 추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5. Terms according to the hinge shapes in traditional Western furniture styles

Term	Hinge	Term	Hinge
Cock's-head hinge (수탉머리 경첩)		Butterfly hinge (나비 경첩)	

<p>H-hinge (H 경첩)</p>		<p>H-L hinge (H-L 경첩)</p>	
<p>Strap hinge (손잡이 경첩)</p>		<p>Horseshoe & strap hinge (말굽손잡이 경첩)</p>	
<p>Rat-tail hinge/Devil-tail hinge (쥐꼬리 경첩)</p>		<p>L-hinge (L 경첩)</p>	

4. 결 론

국내 통일화·공식화된 가구용어 및 사전이 전무한 실정에서 한국전통목가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장, 농, 농, 반닫이장의 종류 및 그 명칭 그리고 그 가구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첨가된 경첩에 관한 형태와 용어에 중점을 두어 연구 하였다. 한국전통목가구 (*Jang*)와 경첩, 서구의 전통가구종류와 경첩과 비교 분석하여 한글표기 및 영문 표기를 분석하여 제안하였다. 따라서 두 가구의 쓰임새 및 형태에 한글과 영문표기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전통목가구에서 주로 옷이나 생활 귀중품 및 소품을 함께 보관하는 옷장, 의걸이장, 반닫이장, 문갑장은 워드روب (Wardrobe), 찬장은 컵보드(Cupboard), 책장(Bookcase), 반닫이(Half-opened chest)로 영문 표기를 하였다(Table 1 참조). 서구의 가구에서 볼 수 있는 궤(Chest), 찬장(Cupboard/buffet), 옷장 (Wardrobe), 장(Cabinet, Secretary), 서랍장(Commode), 책장(Bookcase) 등으로 영문을 한글로 표기하였다(Table 2 참조). 그리고 그 두 경첩을 비교해 볼 때 그 형태에 따라 용어가 붙여졌으며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있는 자연으로부터 온 동·식물, 사용하는 사물, 옷, 음식, 알파벳 글자 등에서 아이디어를 전개하여 실용성에 장식성을 추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통가구 종류 및 경첩을 중심으로 하여진 용어 표기 본인의 제안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 연구는 극히 작은 부분에서의 분석이었으므로 전반적으로 깊고 다양한 부분에서 전통목가구 용어 연구가 가까운 미래에 수행되어, 한국전통목가구에 담겨진 용어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잘 전달하여 보다 정확하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외래어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국전통목가구 용어들이 공식적인 한국어로 통일한 후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영어 식 표기로 다시 변환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표준화된 용어로 인정되어 쉽게 이해되며 통일된 용어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5. 참고문헌

- 김병수. 2008. 인터뷰: 시우쇠의 제작과 그 공구. 진주: 한송공방
- 국립민속박물관. 2004. 목가구. 서울: 대원사. 9, 12-13, 186, 274, 621
- 나선화. 1989. 소반. 빛깔있는 책들. 서울: 대원사. 73
- 손재식, 강봉규. 1990. 장식과 자물쇠. 빛깔있는 책들. 서울: 대원사. 24
- 이종석. 1986. 한국의 목공예. 서울: 설화당. 32-33
- 정진호. 2008. 인터뷰: 시우쇠의 제작과 그 공구. 진주: 단원공방
- Blakemore, G. 1997. History of Interior Design and Furniture. New York: Willy. 79, 135, 172, 255, 257, 304,
- Boyce, C. 1988. Dictionary of Furnitur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Inc. 34, 49, 56, 77, 140, 314
- Lucie-Smith, E. 1993. Furniture: a concise history. New York: Thames and Hudson Inc. 76, 79.

가구학회 연회비 안내

■ 회 장	20 만원 / 년
■ 도서관회원/기관회원	10 만원 / 년
■ 부회장/	10 만원 / 년
■ 상임이사/이사	5 만원 / 년
■ 정 회 원	1 만원 / 년
■ 입 회 비	1 만원 / 년
■ 찬 조 비	무제한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215-381700	
■예 금 주 : 전수경(한국가구학회)	